



## 황실의 여자들 : 비교, 비교, 비교 그리고 인권

지난해 5월 1일 일본에서는 ‘생전퇴위(生前退位)’의 길을 택한 아키히토 천황이 물러나고 새로이 나루히토 천황이 즉위했다. 이전 천황이 여전히 생존한 가운데 새로운 천황을 맞이하는 — 이전 천황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새로운 천황을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보기 드문 ‘경사’였지만, 새로운 천황을 맞이하는 데 대한 우려의 시선이 없지 않았다. 그중 하나는 오랜 시간 세간의 걱정을 사온, ‘적응장애’를 앓아 10년 이상 황실의 행사뿐 아니라 가족 모임조차 소홀히 해온 황태자비 마사코가 앞으로 ‘황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마사코는 하버드대(졸업)·도쿄대(편입)·옥스포드대(유학) 등의 명문 대학을 두루 거친 외무성 최초의 여성 관료로서, 한창 정력적으로 활동하던 1993년 당시 황태자였던 나루히토의 열렬한 구애를 받아 29세의 나이로 결혼(해야)했다. 결혼 당시에는 커리어우먼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황태자비의 모범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고, 본인도 풍부한 해외 경험과 빼어난 영어 실력 등을 살린 이른바 ‘황실 외교’에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일본 역사나 황실 규범을 영어로 읽는 게 편할 정도로 서양 문화권에서 자란 그가 극한의 전통과 예법을 준수해야 하는 황실 생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후계자 생산’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더더욱 없었다. 결혼 8년 만인 2001년 딸(아이코)을 낳은 것도 상황을 호전시키지는 못했고 —여제(여성 천황)를 허용할 것인가라는— 황위 계승을 둘러싼 또 다른 고민으로 이어졌을 뿐이었다.

이미 2003년경부터 마사코에게는 줄곧 ‘요양’ ‘적응장애’ 그리고 ‘인격부정’ 등의 용어가 따라다녔고, 아이코가 성장하면서부터는 극성스러운 엄마(‘교육마마’)의 이미지가 더해졌다. 이후 마사코는 여전히 ‘회복 중’인 가운데 남편 나루히토는 황태자로서 각종 국사와 공무를 대부분 홀로 수행하게 되었고, 공식 석상에 마사코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뉴스가 될 정도로 흔치 않은 일이 되었다. 그러한 마사코에게 황후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마사코를 향한 못 미더운 시선과 염려의 배경에는, 황후로서 평생 쉬지 않고 ‘눈부신’ 활동을 전개했던 시어머니 미치코의 존재가 있다. 1959년 결혼 퍼레이드에 60만 인파가 운집했고, 결혼식 중계가 TV 보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이른바 ‘미치 붐’(미치코 붐)을 일으켰던 센세이셔널한 등장은 마사코와 다르지 않았지만, 결혼 이후의 행적은 사뭇 달랐다. 그 역시 명문 여대를 빼어난 성적으로 졸업했고 테니스 등 스포츠에도 남다른 실력을 자랑하는 재원이었지만, 사회 진출 대신 결혼을 결심했을 때에는 자신을 위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남편에게 ‘가정의 행복’을 맛보게 하겠다는 바람과, 최초의 ‘평민’ 출신 황태자비라는 입장을 살려 황실과 국민의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가졌다고 ‘알려졌다’. 결혼 후 —마사코와 달리— ‘다행스럽게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두 아들과 딸을 잇달아 출산하여 후계자 생산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는, 자녀교육에서도 각종 미담과 교훈을 쏟아냈다. 그의 언행을 분석하고 상찬하는 적지 않은 서적이 출판될 정도로, 미치코는 살아있는 현모양처의 교과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한편으로 미치코는 이른바 상징천황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통해 천황제의 가치를 온몸으로 증명하려는 남편 아키히토의 뜻을 누구보다 충실히 실천한 동지이기도 했다. 1990년 즉위식 당시 국내외 국민 2200명을 나홀로 걸쳐 7회로 나누어 접대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 국내에서는 국민에 다가서는 황실을 구현하려 했고 해외 각국과는 우의를 다지는 이른바 황실 외교를 실천하는 등, 황후로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헌신적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특히 세계 각지에 흩어진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유적지나 유족을 찾아 추모·위령의 의식을 다하고, 3·11 동일본대진재 당시 이재민 앞에 무릎을 꿇고 시선을 맞추며 위로했던 것은 이른바 ‘헤이세이류(平成流)’라고 불리며, 일본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오랜 기간 동안 미치코 황후의 헌신에 익숙해진 일본 국민이, 적응장애라는 사적인 이유로 두문불출하는 마사코 황후의 등장에 대해 못 미더운 시선을 보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미치코의 뚜렷한 족적과 눈부신 활동이 —대중친화적인 천황(황실)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보수세력으로부터도 비판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며느리인 마사코를 향한 비난의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에이, 남의 눈치를 보거나 서로 비교하지 말고 각자 황후의 역할을 소신껏 하면 되지”라고 입바른 소리를 하고 싶지만, 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무엇보다 황후의 지위나 책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일본국 헌법의 제1~8조가 여전히 천황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들어 현재의 상징천황제에 대해 의구심과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그리고 ‘남계 적자’에 의한 황위 계승을 규정한 황실전범의 내용이 여성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새로울 것이 없지만, 헌법에

든 황실전범에든 ‘황후의 역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꽤 중요한데, 황후로서 ‘클리어’ 하면 되는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모든 황후는 끊임없이 과거의 황후와 비교 당하면서 일종의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황후의 역할을 충실히 계승할 것인가, 새로운 황후의 역할을 참신하게 창조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쟁과 비교의 상대는 직전의 황후 즉 ‘시어머니’라는 점에서 세간의 고부갈등과 겹치면서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되기 쉽지만, 경쟁의 상대가 반드시 선대(先代) 황후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황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황후라는 성배를 받아 든 이상, 같은 황실의 여성으로서 시어머니는 물론 동서, 미래의 며느리, 조카, 심지어는 딸이나 과거의 자신과도 비교와 경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하필 마사코의 동서인 기코는 결혼 전부터 다소곳하고 예의가 발랐고, 결혼 후에는 현모양처라는 평을 듣고 있다).

기코는 결혼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코 씨는 첫사랑입니까?”라는 —듣는 사람이 민망해서 온몸이 쪼그라들 것 같은— 질문을 받았다. 그는 신랑을 향해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라고 그의 의중을 먼저 확인해서 허락을 받은 후, 미소를 지으며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이러한 장면 후 기코의 인기는 더 높아졌다고 한다. 반면 마사코는 결혼 발표 기자회견에서 신랑의 답변 후 “제가 한 말씀 덧붙인다면”이라며 자기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서, 신랑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마사코가 두문불출하는 동안 남편 홀로 국사나 공무에 나선 것이 낯설어 보였지만, 돌아보면 미치코가 아키히토와 부부동반으로 공식 석상에 나서는 것도 낯설어 보이던 때가 있었다. 부부동반이라는 문화 자체가 일본 황실의 오래된 전통은 아닌 것이다. 최초의 평민 출신 황후라는 미치코의 대표적인 수식어는, 화족(귀족) 출신인 시어머니 고준 황후(히로히토 천황의 부인)를 구시대의 유산으로 보이게 했다. 미치코가 학업뿐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발군의 ‘능력’의 소유자라는 점은 그가 —신랑뿐 아니라— 전 국민을 매료시키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겠지만, 동시에 혈연과 밀실 회의를 통해 황후로 간택되었던 과거의 황후들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었다. 고준 황후가 평민 출신의 미치코를 맘에 들어 하지 않았거나, 미치코가 황실에서 노골적인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소문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하지만 미치코가 여주인공이 되는 스토리에서는 악역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시어머니 나가코(고준 황후) 역시, 황실에 들어온 이후 황후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남편 히로히토(쇼와) 천황의 임기가 1926년~1989년으로 길었던 만큼, 그리고 그의 임기 중인 1945년 패전으로 천황제 혹은 천황의 위상이 크게 바뀌었던 만큼, 전전과 전후라는 각각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황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것이다.

그가 황태자의 신부로 간택되었던 1920년대에는 미디어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 역시 전례 없이 대중친화적이고 적극적인 발신으로 큰 인기를 모았다. 이후 일본이 대규모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시기

에는 전쟁 협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자애로운 국모’ 역할을 수행해야 했고, 패전 후 천황의 ‘인간선언’과 일본의 급속한 민주화 속에서 그 역시 한 명의 어머니이자 아내로서 충실한 모습을 보여 인간적이고 대중친화적인 상징 천황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후의 일본에 새로이 ‘단란한 가족’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황후가 천황과 부부동반으로 각종 행사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도 사실상 그의 시대에 시작한 것으로, 전후 인간적인 천황상을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메이지 천황은 부부동반을 좋아하지 않았고, 다이쇼 천황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선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일본이 패전의 그늘을 벗어나 고도성장기에 진입하고 대중이 상징 천황이라는 인간적인 천황의 모습에도 익숙해지면서, 어느덧 황실과 국민을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그의 역할도 효용을 다하게 되었던 것이다.

굳이 근대의 메이지·다이쇼 천황의 황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이상과 같은 최근 3대의 황후의 행적만 살펴봐도 하나의 패턴이 드러난다. 첫째로, 예비 신부로서 처음 소개될 때부터 결혼 직후까지는 대중으로부터 광적인 인기를 얻어 덩달아 황실의 인기도 상승한다는 점, 둘째로, 그러한 인기가 항상 선대 황후와의 비교 및 극복을 통한 것이자 자신의 말년을 예감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황후로서의 역할은 법률로 규정된 바 없이 오로지 그를 향한 남편을 비롯한 황실의 기대, 혹은 당대 사회가 황실에 요구하는 ‘어떤 역할’에 부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다. 황실과 인연을 맺게 되는 한 여성의 장점은 그 개인의 것으로서 호평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의 선대 혹은 주변의 황실 여성과의 비교를 통해 누군가를 향한 공격의 칼날이 될 수밖에 없다. 혹은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규범으로 강요되기도 한다.

그들의 삶은 공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일거수일투족은 미디어에 노출되며 하마평의 대상이 되는데, 유명 연예인의 삶과 비교해도 지나칠 정도로 장기적이고 유명세에 비해 별다른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가혹하기까지 하다. 미치코와 마사코 모두 황태자의 구애를 받은 직후 장기간의 해외 체류를 선택함으로써 완곡한 혹은 적극적인 거절의 뜻을 표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거절할 자유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결혼을 ‘선택’한 후에는, ‘세금으로 생활한다’는 명분하에 개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크게 제한되었다. 매일매일 체온을 비롯한 건강의 체크뿐 아니라 쓰레기통 내용물까지 확인의 대상이 되고 액세서리나 복장, 말투까지 엄격한 규율을 받는 곳에서, 감시와 도청에 대한 강박이 없는 온전한 사생활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마사코의 적응장애에 관한 궁내청의 언론 브리핑 도중 “생리가 있으셨습니다”라는 보고는 가장 끔찍한 사례였다. 여성 황족들이 공식 의례에 나설 때면 어김없이 입는, 유럽의 어느 시대쯤에 입던 것일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로브 데콜테(robe décolletée)라고 불리는 — ‘뽀뽀이는’ 드레스는 일종의 유니폼이자 의례의 일부이니 그럴 수 있다 쳐도, 모든 여성 황족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한 손을 들어 천천히 흔들며 볼 경련이 일어난 듯한 어색한 미소를 짓는 것은, 처음으로 내가 가진 표정의 자유(?)를 인식하게 만들 정도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황족(특히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트루먼쇼’를 즐기면서도 그들의 사생활 공개나 인권 침해에 대한 죄책감,

심지어 미안함조차 부족해 보인다. 세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 희생은 당연하다고 정당화하기까지 한다.

그러한 논리가 타당한지도 의문이지만, 일본의 황족들은 —다른 나라의 황족이나 이른바 ‘셀럽’들도 공히 경험하는— 미디어와 대중의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지 않기에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하며,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국민이 아닌 것이다. 만일 세금에 의한 생활을 포기하겠다는 이혼이라는 길을 택하려 한다면, 미안하지만 황후에게는 그러한 길이 허용되지 않는다. 황후의 이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천황이 이혼할 수 없기에’ 그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 더 당황스럽게 한다(천황에게도 당연히 ‘인권’은 없다). 혹시나 —결혼이라는 관계는 유지하면서— 황후라는 ‘지위’에서만 물러나겠다는 깜찍한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물론 가능할 리가 없다. 아, 아직 황태자비일 때는 가능하다고 한다. 이론적으로는.

그나마 마사코도 미치코도, 그리고 마사코의 동서인 기코도 모두 성인이 되어 청혼을 받은 후 다가올 미래를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결정한 길이기도 했다. 하지만 황실에서 ‘태어난’ 여자들의 경우는 형식적이거나 그와 같은 선택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는다. 현 천황의 남동생(후미히토)의 두 딸인 마코와 가코는 물론, 마사코의 딸인 아이코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인 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황족의 지위를 잃고 평민으로 ‘강등될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황족으로 태어나 황족으로서의 삶을 살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평민의 삶을 관찰하고 배워야 하는 셈이다(여성 천황으로 즉위할 일말의 가능성 때문에, 혹시 아이코는 —평민으로의 강등과 더불어— 후계자 수업마저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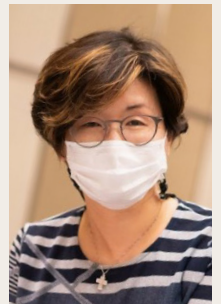
이들은 황실의 일원으로서 어릴 적부터 각종 공무에 참가하거나 각종 단체의 명예직을 맡아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훗날 일반 가정에서 평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사와 육아를 위한— 각종 생활양식도 학습해야 하고, 나아가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학업과 훈련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결혼으로 황실을 떠난 후에도 각종 문화·구제 등과 관련된 사회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신부로 맞이해줄 적당한 신랑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수년 전 마코가 결혼을 발표한 후, 신랑 측(의 가족)에 채무 문제가 있음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결혼이 연기된 끝에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은, 이들의 배우자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혼 시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엔(약 16억 원) 가까운 지참금이 주어질지라도 말이다.

미치코, 마사코, 기코뿐 아니라 황실의 공주들까지,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고 그들의 일상이 매일매일 중계되면서 각각이 얼마나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현모양처’인지(혹은 그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가 시시각각 비교되고 평가되며 순위가 매겨지는 곳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 ‘아름다운 [일본] 여성’에 대한 규정과 의식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곳에서, ‘쿨하고 걸크러쉬 터지는’ 자유로운 영혼의 등장을 기대

할 수 있을까. 도쿄대, 옥스퍼드대, 하버드대를 거친 외교관이라는, —남녀의 구분을 넘어—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마사코조차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 말이다. 황실 여성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민망함과 안타까움 혹은 짠함은 반드시 그들만을 향한 것은 아니다. 그들로 ‘상징’되는, 혹은 그들을 상징으로 —혹은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매일매일 강요받는 더 많은 이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건투를 빈다.

#### <읽을거리>

- 권숙인, 「전후 천황제와 젠더: 전후 천황제와 젠더: 황태자비 마사코의 시련과 황실의 위기를 중심으로」, 『일본비평』9, 2013.
- 이은경, 「천황에게 인권을: 일본 천황 생전퇴위론의 전개와 쟁점」, <여시재 이슈 브리프>, 2018  
<https://www.yeosijae.org/research/181>



**이은경**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